



겨울철 노숙인시설 · 단체 한파대책 회의 결과보고

2018. 12.

복지본부
자활지원과

겨울철 노숙인시설·단체 한파대책 회의 결과보고

12.26(수) 23시 한파주의보 발령에 따른 노숙인 사고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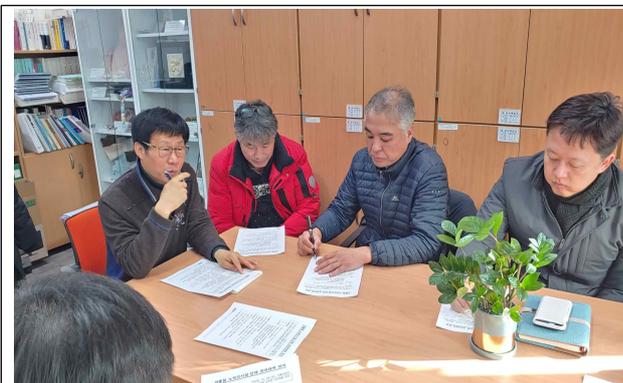
1 대책회의 개요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8. 12. 28.(금) 10:30~11:30(1시간)
- 장 소 :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
- 참 석 자 : 8개 시설·단체 대표·실무자 10명
 -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(여재훈 소장, 이수범 현장실장),
브릿지종합지원센터(이문재 소장, 김영택 과장),
옹달샘(이찬 실장), 햇살보금자리(김기용 소장),
비전트레이닝센터(최성남 소장), 영등포보현의집(임도영 원장)
거리의천사들(이장성 팀장), 달팽이소원(윤건 대표)

◆ 겨울철 노숙인보호대책 개요

- 거리·쪽방 상담반 운영 : 36개조 89명 (특보시 50개조 112명)
- 건강취약자 특별보호 : 고령자·중증질환자 등 거리노숙인 99명
- 응급잠자리 제공 : 1일 최대 1,336명 (평시 최대 661명)
- 노숙인시설 화재예방, 겨울철 시설안전점검 등



2

회의 주요내용

□ 주요안건

- **혹한기 심야·새벽시간 노숙인 거리상담 활동 강화**
 - 현행 거리상담반 36개조 89명 운영(특보시 50개조 112명)
 - '19. 1월부터 시청 청사 주변 심야시간(새벽 2 ~ 6시) 상담반 1개조 2명 증원 (브릿지종합지원센터)

- **시설입소·주거지원, 병원입원 등 거리 취약노숙인 보호대책**
 - 거리상담시 시설입소 및 임시주거지원 등 적극 유도, 거리취침 최소화
 - 시설입소나 임시주거지원 불응시 침낭, 핫팩 등 방한물품 적극 지원
 - 정신질환·알코올중독 노숙인 발견시 정신건강팀 연계

□ 시설·단체별 건의사항

- 영등포희망지원센터 상시 24시간 운영인력 증원요청
 - '19년부터 희망지원센터 인력 6명 증원, 상시 24시간 운영지원

- 핫팩 등 구호물품 구입예산 추가지원 요청
 - '19. 1월 겨울철대책 보조금 신청시 반영, 시설별 교부

-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연도별 공백기 없이 1월초부터 지원요청
 - '19.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추진 예정

3

행정사항

- 시청 청사주변 심야시간 거리상담반 증원 : '19. 1월부터
- '19. 1~3월분 겨울철 대책비 신청·지원 : '19. 1월초
-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비 보조금 신청 : '19. 1월초